주님 부활 대축일

2019년 4월 21일(다해)

대전주보
발행 유흥식(제2516호) | 편집 천주교대전교구 홍보국 | 전화 042-630-7700 | 팩스 042-630-7755
주소 34539 대전 동구 송촌남로11번길 86 | E-maill tjubo@hanmail.net | 홈페이지 http://www.djcatholic.or.kr

2p_ 말씀의 향기 / 바울이 3p_ 이충무의 행복나침반 / 아뉴스데이 4 · 5p_ 주님 부활 대축일 메시지
6 · 7p_ 시노드 본회의 건의안 및 폐막 미사 안내 8 · 9p_ 금경축 사제 인터뷰
10 · 11p_ 알립니다 12p_ 교구 기관 및 본당공동체 소식 / 전례

말씀의 향기

깨달음과 변화

김용호 아브라함
논산대교동 주임

어느덧 또 한 번의 주님 부활 대축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 축제를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며, 새로이 부활 시기를 지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 신앙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바오로 사도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되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1코린 15,14.16)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진정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뵌 사람들의 증언으로 우리는 부활 신앙을 품고, 부활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니 부활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복음의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빈 무덤만을 보고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은 깨닫지 못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는 '급격한 변화'를 일으켜 부활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양으로서,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우리 생명을 되찾아 주셨음'(부활 감사송1)을 깨닫고는 부활을 선포하며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급격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변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대한 신앙을 품고 있는 우리에게, 깨달음이란 어느 날 불현듯 갑자기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마음속으로 이리저리 따져 깊이 생각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양으로서,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우리 생명을 되찾아 주셨다.'는 사실은 더 이상 깨달음이 아니라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여기에 있는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줍니까? 각자 각자가 얻는 깨달음의 내용은 다르겠지만, 사순시기 동안 참회와 인내와 자선의 삶을 충실히 산 이는 조금은 쉽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목말라하는 그 모습 자체가 참회와 인내와 자선의 삶으로 드러났을 것이고, 부활의 의미를 깊이 곱씹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 나는 어떤 깨달음을 얻으려 합니까? 스스로의 답을 만들 수 있을 때, 그때 가서 변화도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부활 대축일을 맞이하여 다시금 '부활'의 의미를 곰곰이 묵상하며, '육신의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오늘도 내일도 그다음날도 부활의 삶으로 변화하는 나날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805)
유판식 토마스

이충무의
행복나침반 (261)

잠든 사람과 잠든 척하는 사람

잠들어 있는 사람과 잠든 척하는 사람 중 어느 편을 깨우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일까요?

매주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열혈 시청했던 TV 드라마 〈열혈사제〉의 주인공인 신부님은 주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까지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었지만,
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었습니다.
다 알면서 눈감고 있는 자들을 깨우는 건 너무나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백번 공감 가는 고백입니다. 잠든 사람이야 흔들거나 큰 소리로 깨울 수 있다지만, 잠든 척하고 끝까지 버티면 그 사람을 과연 무슨 수로 깨울 수 있을까요?

무엇이 죄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다만 잠든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불의이며 죄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은 잠든 척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절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부활로 잠든 사람을 깨우시고자 하는 날이 아니라, 자는 척하고 있던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잠에서 깨어나길 바라시는 날입니다.

드라마 속에서 온갖 불의를 외면하며 살아가던 형사들이 더 이상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 결심하는 모습을 보며 신부님은 아까 그 고백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자신의 의지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는 척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보시고 싶어 하는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눈을 반쯤 감고 자는 척하는 어설픈 연기를 멈추고, 맑은 눈으로 스스로 깨어날 시간이 바로 우리 코앞에 와 있습니다.

이충무 바오로 / 극작가(건양대학교 교수)

아뉴스데이

글·그림 이순구(베네딕도)

주님!
이 날에는
눈을 활짝 뜨게 하소서.

사람이 사람을 위하고
또
사람이 사람을 위하고
이 날에는
활짝 피는 꽃망울처럼
그렇게
눈을 뜨게 하소서

“예수님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 (요한 20,9)

알렐루야, 알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총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가득하시길 빌며, 기쁨으로 부활 인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마음껏 축하할 수 있는 우리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신앙 선조들이 부활절을 기뻐하는 잔치 중에 관아에 끌려가는 마음 아픈 장면이 있는데, 부활 인사를 이렇게 자유롭게 나눌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시공간을 뛰어넘어 오늘 복음(요한 20,1-9)으로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제자들은 시신을 도둑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토록 예수님 가까이에서 부활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어왔던 그들도 부활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사실, 이들의 반응은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혜택을 부족함 없이 누리며,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활을 믿는 우리 모습이 놀랍기조차 합니다.

이 지점에 서서 부활을 기뻐하는 우리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봅니다. 나는 어떻게 부활을 믿게 되었을까?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내 삶에 얼마나 큰 희망을 주고 있을까? 나의 부활 신앙을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정말 힘들고 견디기 힘든 일을 만날 때,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그 고통을 견디는 위로와 힘을 받은 적이 있었던가?

이 질문 앞에 분명한 것은 신앙이 하느님의 선물로 우리 마음에 심어진 신비라는 사실입니다. 부활 신앙은 그 정점에 놓인 신비입니다. 부활 신앙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무엇을 희망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기준입니다. 부활을 믿을 때, 예수님의 죽음을 보며 분노하고 슬퍼하던 마음을 거두고 세상으로 나와 비로소 세상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성경은 영화기록물처럼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사건을 경험했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확인하는 부활체험을 통해 성경의 부활 이야기를 이해하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제자들의 모습(루카 24,13-35 참조)도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변화되는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활체험을 포함한 우리의 하느님체험이 시공간을 뛰어넘어 성경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의 부활체험은 언제 일어날까요? 우리 시대의 부활체험은 다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이전보다 예민하게 느끼며 함께 아파할 때, 당장 손만 뻗으면 내 것이 될 이익을 양심의 움직임에 따라 포기할 때, 아무 희망이 없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두려움을 견디며 가느다란 빛의 인도를 따라 걸어갈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 어떤 보람도 느낄 수 없는 메마름 속에서 하느님만을 믿으며 사랑을 실천할 때,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 중에서도 알 수 없는 평안이 나를 감쌀 때, 불의와 거짓 앞에 타오르는 분노와 보복하려는 마음을 삭이고 보다 나은 세상을 건설하려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분출할 때, 바로 이때 합리성을 넘어서는 초월의 신비를 경험하며 부활 신앙이 우리를 이끌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당장 보이는 절망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의 누룩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와 악에 타협하지 않으며, 선과 정의와 평화를 ‘지금 여기’에서 가꾸어가는 사람입니다. 분단 앞에서 일치를 꿈꾸고, 차별과 지배의 문화를 거슬

러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며, 경제적인 잣대로 존재의 가치를 평가하는 흐름에 맞서 생명의 신비와 배려의 풍성한 열매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미움과 전쟁의 야욕이 지구촌의 지도자들에게까지 퍼져나가는 현실 앞에서 기쁜 소식을 선포해야 합니다. 미래 세대가 살아갈 만한 세상, 삶이 기쁨이며 축복인 세상, 창조하신 모든 존재를 통해 하느님을 찬미하는 세상, 악의 모습에 가려진 인간의 선함을 신뢰할 수 있는 세상을 건설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평안과 사랑의 향기가 세상을 밝히고, 교회 안으로 세상을 초대합니다. 이를 통해 교회는 깜깜하고 잔인한 세상을 비추는 희망의 불빛이 되고, 하느님을 보여주는 성사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자매형제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선교와 복음화로 집약됩니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작용하며,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증거하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실현됩니다. 현대 교회의 위기는 교회의 사목과 신앙인의 삶이 그리스도의 현존과 사랑을 증거하지 못하는 상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전교구는 현대 세계의 징표를 읽고 교회 자체와 세상의 복음화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실현하는 모범을 보이고자 시노드를 개최하였고, 이제 그 장대한 폐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구의 시노드는 부활 신앙에 뿌리를 두고 현대 사회의 복음화를 충실하게 실현하기 위한 결단입니다. 시대적 요청에 응답하려는 교구 시노드는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부활, 곧 **"예수님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요한 20,9)는 말씀에 기초합니다. 저는 지난 2015년 12월 8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에 기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구 하느님 백성 모두에게 "대전교구 시노드 개최"를 선포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들을 실행에 옮기기 위함이었습니다. 특별히 교황님의 권고인 『복음의 기쁨』과 우리 교구 정체성의 뿌리인 '순교영성'을 바탕으로 사제, 수도자, 평신도가 마음을 모아 우리 시대에 주어진 과제를 함께 고민해 가고 싶었습니다.

마치, 뜨거운 감동으로 눈을 뜨게 된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시노드를 통해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걸어온 교구 시노드는 4월 27일 솔뫼성지에서 폐막 미사를 통해 '최종문헌'을 발표할 것입니다. 폐막은 마침이 아니라, 모두 함께 고민하고 걸어온 대장정의 꿈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작년에 있었던 '세계주교 시노드'에서 교회의 사목은 바로 시노드 사목이라고 천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대전교구의 사목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웃과 함께 걷는 시노드 사목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시노드를 시작하면서 **"하느님의 다양한 은총의 관리자로서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십시오."**(1베드 4,10)라는 주제성구를 선택하였습니다. 더불어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마태 20,27)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더 많이 봉사하여 시노드를 살아가는 '첫째'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함께라면 갈 수 있는 길, 함께여서 갈 수 있는 길, 함께이기에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차이가 이해로, 이해가 일치로 변화되는 신비의 여정을 이끌어주시리라 믿으며,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시노드를 마치며, 새로운 여정을 함께 걸어갑시다.

다시 한번, 우리 교구 시노드가 걸어온 모든 여정에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께 찬미와 영광 올려 드립니다. 성모 마리아님, 우리의 장한 신앙의 선조님들, 그리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시노드를 통해 우리 교구 공동체가 좀 더 성숙해지길 바라며, 시노드를 살아가는 새로운 여정에 모두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4월 21일 주님 부활 대축일에

천주교대전교구장 주교
유흥식 라자로

건의안

가톨릭 교회의 사회복지 활동은 가난한 이들의 사회통합과 가난의 구조적 원인 변화를 지향한다.

배경설명 요약

「복음의 기쁨」에 따르면, 모든 그리스도인과 공동체는 가난한 이들이 사회에 온전히 통합될 수 있도록 가난한 이들의 해방과 진보를 위한 하느님의 도구가 되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음. 우리 사회에는 물질적 가난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가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무수히 많으며,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형태의 가난에 대하여, 교회적 관심과 사랑을 어떻게 전달하고 실천할지 성찰하고, 이에 필요한 인식 개선과 신앙인으로서 실천 방안을 마련해야 함.

세부건의안

1) 물질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차원의 가난에 대한 교회 구성원의 민감성을 증진하고 도움을 적극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평신도 교육 강화.
2) 한끼백원나눔운동본부가 실시하는 금융복지 상담을 활성화해 구조적 병폐 완화. 금융복지상담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여 각 본당 및 지구 차원의 금융복지 관련 교육이나 상담 서비스 제공.

건의안

가톨릭 교회의 사회복지 활동은 지역사회 자원 및 정부의 복지제도와 연계 · 조정 · 협력을 추구하고, 교구 내 사회복지시설 설치와 운영에 복지욕구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

배경설명 요약

대전 교구는 사회복지분과를 지구협의회와 이를 총괄하는 교구협의회를 운영하며 네트워크 구축을 하고 있음. 그러나 교구 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이러한 인프라를 모르는 경우도 많고 연계가 되지 않은 채, 본당별로 분리된 활동을 하고 있어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이와 관련해 본당사회복지분과 활동의 활성화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의 확장 및 지속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필요. 또한,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가족구조 및 기능의 급격한 변화, 탈시설화, 자립지원 정책 강화 등으로 발생되는 복지욕구와 관련해 대전교구 관내 새로운 시설을 요구하거나 수요가 크게 감소하는 시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한 선도적인 적극적 대응방안 마련 필요.

세부건의안

1) 본당 사회복지 활동 봉사자를 대상으로 체계적 심화 교육 및 보수교육 실행.
2) 복지 욕구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본당들의 지역사회 자원 및 복지 제도 연계를 위해 시범사업으로 통합지구별 전담 사회 복지사 배치 시도.
3) 본당 간 네트워크를 통해 자원의 분배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띠앗누리사업과 본당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동형 푸드마켓 확대.
4)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복지사업이 아니라면, 점진적인 정리와 조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난한 이웃을 향해 교회의 사회복지 역량 집중.

건의안

지속적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의 사용을 위해 교회의 시설과 기관들에 태양광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소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

배경설명 요약

개인이나 개별 국가의 차원을 넘어서 국제사회나 공동체 차원에서 생태와 창조질서의 보존을 위해서 친환경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부분 필요.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를 설비할 때, 산업 폐기물 등 다른 환경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전력공급을 위해 화력 발전소를 대체하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따른 핵폐기물 등 더 큰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선택.

세부건의안

1) 이미 타 종교에서는 태양광 발전소를 설비해서 자력으로 교당이나 교회 건물에 전기 공급. 우리 교구도 교회 건물과 시설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2) 교구에서 시범 본당이나 교구 성지에 태양광 발전소 설비 장소를 선정해서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했을 때의 장단점을 파악한 후 전체적으로 시행.
3) 시범 본당이나 교구 성지 자체적으로 태양광 발전소 설비에 많은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 교구에서 일부 설비금액을 지원하고 교구 전체로 확대.
4) 교구 전체로의 확대를 위해 교구 생태위원회를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소 협동조합을 만들어 교구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

SYNOD Catholic Diocese of Daejeon
문의 시노드사무국 042·630·7767
천주교 대전교구
시노드 폐막미사
2019 · 04 · 27 토
오전 10 · 30 – 오후 12 · 00
장소 천주교 대전교구 솔뫼 성지
대상 대전교구 전신자
참가신청
대전교구 홈페이지
http://www.djcatholic.or.kr
시노드 홈페이지
http://synod.djcatholic.or.kr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전교구 희년 전대사 수여
[일반조건 충족시]
• 선착순 3,000명에게
기념품과 점심식사를 제공해 드립니다.
2015~2019
SYNOD

금경축을 맞으시는
신부님들의 인터뷰

축하드립니다

이종대(요셉) 신부

어떤 마음으로 금경축을 맞으시는지, 그 소감이 어떠신지요?

제가 금년에 서품 50주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무한한 은총과 주교님들, 신부님들, 수도자들, 신자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주님과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며, 이웃에게도 더 많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기도와 사랑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특히 매일미사와 묵주기도 바칠 때, 여러분의 영육 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제로서의 직무 가운데 기억나는 일화가 있다면...

대천본당에 있을 때 본당에 한 남성이 찾아와서 자신의 아내가 위중하다고 병자성사를 청하였습니다. 그 남성을 따라 약 8km 정도 떨어진 오두막집에 가서 누워 있는 자매에게 고해성사와 병자성사를 주고, 성체를 정성껏 영해 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다음 주일에 그 자매가 병이 다 나은 모습으로 남편과 함께 성당에 왔을 때 너무 감사했고,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성사를 받고 성체를 모시고 나서 아내가 나은 후 비신자인 남편도 교리공부를 하고 영세를 받았습니다.

이 경험으로 병자성사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신자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다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후부터 병자성사나 봉성체를 해주러 더 열심히 다녔고 더 정성껏 성사집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제서품 성구는 무엇인가요?

서품 성구는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루카 23,46)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다 이겨내신 후 아버지께 대한 신뢰 가득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신 것처럼 저도 예수님처럼 살다 죽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성구를 선택했습니다. 비록 미약하지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항상, 즉시, 기쁘게, '네'를 드리며 주님의 길을 묵묵히 가려고 합니다.

신학교 졸업하기 2년 전에 포콜라레 영성을 만나, 어떻게 복음을 살고,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 모든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면서 마음이 편안하고 다른 사람들과도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루카 23,46)

앞으로 남은 사제생활의 계획과 대전교구 후배 신부들, 신자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항상 주님의 은혜와 교회의 사랑, 그리고 많은 은인들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자합니다.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교회의 구성원 모두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행복하게 살며, 동창회나 여러 친교 모임과 교구행사 등에도 가능하면 참석하고, 특히 신학교에서부터 시작한 포콜라레 영성모임에도 잘 참석할 것입니다.

홀로 완전한 것보다 좀 불완전하더라도 일치가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한 분이신 하느님 아버지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모두 형제자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한가족처럼 서로 사랑하고 도와가며 화목하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거나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고통과 기쁨을 나누는 착한 이웃이 되어 주면 좋겠습니다.

김기룡(사도요한) 신부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루카 5,5)

사제서품 성구는 무엇인가요?

서품 성구는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루카 5,5)입니다. 성직자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명하는 것이고, 교회에 순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니,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학교 담당으로 인사이동이 났을 때, 인간적으로 피하고 싶은 자리였으나 말씀대로 순명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느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제로서의 직무 가운데 기억나는 일화가 있다면...

1970년 논산보좌 때 판공성사를 주러 공소를 갔습니다. 공소 안으로 들어갔더니, 어르신들이 방석 위에 앉히며 큰절을 하시는데, 가시방석에 앉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녁식사 때는 고봉으로 밥을 주시며 어른들이 쳐다보시는데, 다 먹으려다 밥이 너무 많아 결국 남겼습니다. 다음날 아침식사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고, 속이 불편해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아이들과 어른들이 줄을 서서 제가 남긴 밥을 한 숟가락씩 나눠먹고 있었습니다. 신부님이 축성해 준 밥은 명호(冥護) 열린다고 생각해서 서로 나눠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신부가 남긴 밥을 먹는다는 생각보다는 신자들이 신앙의 밥을 먹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느님께 대한 흠승과 사제에 대한 존경이 그곳에서부터 교육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신자들은 순교자로부터 이어받은 엄격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사제생활의 계획이 있다면...

성체조배와 말씀을 묵상하며 지내는데,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본당 신부 때는 주일 강론 준비하면서 독서와 복음을 300~500번 정도 읽고 묵상하면서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강론이 길어 신자들은 힘들었을지 몰라도 저는 좋았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안에 살면 그게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성체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지금도 가장 큰 행복입니다. 성체 앞에서 잠이 들어도 예수님이 있는 곳에 성부, 성령, 성모님, 모든 성인 성녀, 천사들이 함께 계시는 것이니 좋고 행복합니다.

황새바위성지에서 고해성사를 주는데, 고해성사를 통해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을 보면 기쁨입니다. 또 정안공소 신자들과 미사 드리며, 노인 병원에서도 미사와 봉성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환자를 방문하고 나면 사제로서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하겠습니다.

대전교구 후배 신부들과 신자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신경써 주시는 주교님과 신부님들에게 감사하고, 수도자들, 형제 자매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통해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하느님의 은총을 먹고 살기에 고맙다는 인사 밖에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후배 신부님들이 임지에서 열심히 사목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감사합니다. 부탁하고 싶은 것은, 미사 봉헌을 성의 있게 하면서 강론 준비는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모이면 가르쳤듯이,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제직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더라도 하느님께서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순종하며 바꾸어야 합니다. 성경을 자주 읽고 성체조배를 자주 하게 되면, 하느님께 자신을 바꿔달라고 청하지 않아도 하느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저는 하루에 적어도 5시간 정도 성체조배를 하려고 시간을 봉헌하는데, 나머지는 그분이 알아서 해 주십니다.

알립니다

교구알림

교구 설정 70주년 감사미사
- 때 · 곳 : 5.8(수) 10:30, 주교좌 대흥동성당
- 참석 : 교구 사제단, 본당 사목회장단, 수도자 및 신자
- 성경필사 및 묵주기도 1억단 봉헌과 미사 후 점심 식사

교구청 휴무 안내
- 주님 부활 대축일 다음날인 4월 22일(월)은 교구청 휴무일이오니, 교구청 관련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11기 영상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 개강 : 5.13(월) 19:00, 교구청 경당
- 수업 : 매주 월 19:00~22:00
- 곳 : 가톨릭문화회관 4층 사랑관
- 수강료 : 1인 20만원
- 접수서류 : 교구 홈페이지 '함께나눔 게시판' 참조 /접수 : 4.25(목)까지 djhongbo@gmail.com, fax (042)630-7755
- 문의 : (042)630-7752 교구 홍보국

제22차 내포도보성지순례
- 때 : 5.4(토) 09:00
- 순례지 : 신평성당, 원머리공소, 음섬공소, 새터공소, 원머리성지
- 일정 : 09:00 신평성당 집결, 말씀의 전례 14:00 순교자 현양미사(원머리성지)
- 준비물 : 개인 도시락, 음료, 미사 준비, 순례에 맞는 복장
- 문의 : (041)363-6761 신평성당

5월 예비신학생 모임
- 신학교지원반 5.5(주일) 10:00, 교구청 성소국
- 각 지역 예비신학생 모임은 성소주일행사 참여로 대체(신학교에서 출석확인)

청년 사제성소 모임
- 때 · 곳 : 4.28(주일) 13:00, 교구청 성소국
- 대상 : 사제 성소에 관심있는 청년
- 문의 : (042)630-7741

전담사목

직장직종사목부 과학의날 연합 기념미사
- 때 : 4.24(수) 19:00 기념미사 (18:00 고해성사 /20:30 저녁식사)
- 곳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대강당
- 미사집전 : 총대리 김종수 주교님
- 문의 : (042)626-3116~7 직장직종사목부

행복한 부부생활을 위한 ME 소개
- 때 : 5.5(주일)15:00
- 곳 : 대전가톨릭문화회관 217호실, 천안 신부동성당, 서산 석림동성당
- 대상 : 결혼 2년 이상 된 부부(종교불문)
- 문의 : 010-6428-4657, 010-4657-6512
- 인터넷검색창 : 대전교구 가정사목부 http://familia.djcatholic.or.kr

대흥봉수산(124위시복기념)순교성지축복식
- 때 : 5.6(월) 10:00
- 곳 : 예산군 대흥면 의좋은형제길25-14
- 집전 : 교구장 유흥식 주교님
- 문의 : (041)333-0202

10차 대전ME 쇄신주말
- 때 : 4.27(토)~28(주일)
- 곳 : 부강 엠마우스 피정의집
- 대상 : ME주말을 수강한 지 1년 이상 된 부부
- 문의 : 010-6421-8097, 010-6421-7999
- 인터넷검색창 : 대전교구 가정사목부 http://familia.djcatholic.or.kr

교구 젊은이 열린미사
- 때 · 곳 : 4.23(화) 20:00, 새얼센터
- 대상 : 젊은이 누구나 참여가능
- 문의 : (042)824-6773 아자리야선교단
- 아자리야 선교단 페이스북 참조

2019 젊은이 성령축제
- 때 · 곳 : 5.6(월), 부산 주교좌 남천성당
- 주최 : 한국 가톨릭 젊은이 성령쇄신 연합회
- 신청 : 4.26(금)까지
- 문의 : (042)824-6773 아자리야 선교단

본 당

천안아산 말씀피정
- 때 · 곳 : 5.1(수) 14:00, 천안청당동성당
- 강사 : 강요셉 신부(구속주회)
- 문의 : 010-7453-4529

목동성당 100주년 맞이 제18회 평화음악회
- 때 · 곳 : 4.27(토) 19:00, 목동성당(전석초대)
- 연주 : 대전시립합창단 초청음악회
- 주최 : 음사인사(音思人思)평화음악후원회

주교좌 대흥동성당 100주년행사 프로그램 〈성화 목조각을 배웁시다〉
- 개강 : 4.24(수) 14:00
- 수강 : 매주 월(야간), 수(주간) 중 택일
- 곳 : 공간1919(바오로딸서원 옆)
- 내용 : 성화 목조각 기초 및 실습
- 강사 : 송영구(시몬) /문의 : 010-3253-9349

교구 내 기관 및 시설

가정폭력관련시설종사자양성교육 교육생 모집
- 때 : 6.29(토)~9.28(토) 매주 토 (09:00~18:00)
- 곳 :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별관 1층 강당
- 교육비 : 35만원 /제출서류 문의요망
- 신청 : 6.3(월)까지 /인원 50명 선착순
- 입금 : 하나 654-910013-94205
- 문의 : (042)636-2036, 636-2033~4 대전가톨릭가정폭력상담소

2019년 대전가톨릭평화방송 "성지순례"
- 베트남 다낭 성모님 발현지 : 5.6(월)~10(금)
  - 135만원 /선착순 26명 마감
  - 순례지 : 다낭, 호이안, 후에, 성모님 발현지인 라방 지역
- 1급 이상 호텔, 공동 경비 포함
- 문의 : (042)250-3220 대전가톨릭평화방송

5차 순교자 학교 (주제 : 순교에로의 초대)
- 때 : 5.11(토) 14:00~12(주일) 16:00
- 곳 : 정하상교육회관
- 교육비 : 8만원
- 문의 : (044)863-5690~2, 010-8848-5690

교구 외 기관 및 시설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 출발 : 매월 1회, 4박 5일 / 64만원
- 지역 : 가고시마, 나가사키, 아키타
- 주관 : 가고시마교구 / 지도 : 송진욱 신부
- 문의 : 010-3645-9028

제주힐링 성지순례 3일
- 때 : 5.28, 6.4, 7.12, 8.9, 9.17, 10.15, 11.5, 12.17
- 곳 : 제주성지6곳(성지해설)
- 문의 : (064)805-9689, 010-5034-8052 가톨릭사회경제연합

국악성가 "한밭" 합창단원 수시 모집
- 강수근 신부 직강
- 때 : 매주 화 19:30~22:00
- 곳 : 대전내동성당
- 대상 : 65세 이하 남,녀
- 문의 : 010-4397-7284 지휘자 010-5406-1668 단장

예비자 통신교리(우편, 사이버, 신자재교육)
- 주최 :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요금 : 1만원
- 주소 : 서울 중앙우체국사서함5234호 우)04535
- 문의 : (02)2274-1843, 4 /홈페이지 cdcc.co.kr

라파엘여행사 (02)778-8565 6/4, 9/17 이스라엘,요르단10일 289만원 9/9 추석특선 성모님발현10일 335만원 9/11 추석특선 이태리일주 10일 299만원 6/23, 9/1 나가사키4일 949,000원	**비움 심리상담센터** 정부청사역 T. (042)863-9877 부부가족, 아동청소년, 우울 트라우마, 불안, 왕따	**더 웰 피부과** 박장규(안토니오) 김형주(방지거) 유성점 T. (042)825-3045 유성온천역 6번 출구	**에스티 피부과** (전 을지의대 교수 / 현 충남의대 외래교수) 김윤동(사도요한) 롯데백화점 옆 T. (042)535-5800	**킴벨피부과병원** 국내 유일 피부과 2차병원
가톨릭신문사 성지순례 5/21 이스라엘 일주 9일 360만원 5/23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448만원 6/2 터키 그리스 13일 395만원 T. (02)2281-9070/www.cttour.org	**허릭사랑병원** 척추 · 관절 전문 원장: 김관태(바오로), 최우진, 전기현, 정세진, 배규성, 곽상구 T. (042)528-7588 롯데백화점 옆	**이화병원** (041)579-1400 산부인과, 내과, 암케어센터, 공단검진 3D유방초음파, 영상의학과, 산후조리원 충남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165	**탄방엠블병원** 소아청소년과 365일 진료 대표원장 임창규 이나시오 원 장 박완종 요한비안네	**한강 외과** 치질, 대장내시경, 외과수술 김성철(대철베드로) 오룡역 2번 출구 T. (042)523-9856
가람익스프레스 포장이사 전문 이동언(다미아노) T. (042)581-1234, 010-4903-2400	**한진누수탐지** 미국피셔사누수탐지기 보유 누수탐지, 방수공사 T. 010-4942-3331 유진태(요셉)	**가톨릭여행사** 5/13 독일&동유럽 4개국 12일 365만원 5/27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395만원 T. 가톨릭 여행사 (02)319-2533	**제 54차 아일랜드 영어연수** Blackrock College, 국립더블린대학교 초.중.고 : 7.21 ~ 8.10 대.일반 : 6.31~8.11 그린피스 E&T (02)3446-4253	**내쇼날항공여행사** 4월 25일~5월3일 이스라엘 355만원 5월 2일~12일 이탈리아, 스위스, 루르드, 파리 T. 1577-5668 www.nts2300.co.kr

가톨릭대학교 생명 대학원 신입생 모집 (2019 후기)
- 모집전공 : 생명윤리학(임상연구윤리학), 생명문화학 석사과정 /입학전형 : 6.3(월) 14:00
- 원서접수 : 5.7(화)~20(월) 17:00
- 문의 : (02)2258-7076
  가톨릭대학교 대학원교학팀

55차 이스라엘, 요르단 순례
- 때 : 8.27~9.6 (10박 11일), 420만원
- 문의 : 010-9454-5648, www.terrasanta.kr
  작은형제회 이스라엘 성지 한국 대표부

대전 밀레마니 문화영성 센터
- 프로그램 : 캘리그라피, 전례조각초, 이콘, 미술심리상담, 성가 /성악, 수지에니어그램, 영성강좌, 일일피정, 성경공부
- 문의 : (042)226-8185 서대전네거리역 8번출구

교회 운동 및 인준단체

대전미바회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 때 : 4.25(목) 10:30
- 곳 : 탄방동성당 2층 소성당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월례미사
- 때 : 4.25(목) 14:00 /문의 : 010-2265-0668
- 곳 : 탄방동성당 2층 소성당
- 주례 : 연광흠 신부

전례꽃꽂이연구회 4월 월례회
- 때 · 곳 : 4.29(월) 14:00~16:00, 송촌동성당
- 내용 : 전례특강미사
- 작품발표 : 생명 주일, 성소 주일
- 문의 : 010-3755-1833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채용 공고
- 분야 : 사무장 /대상 : 교구내 30-65세 신자
- 자격 : PC업무 가능 분
- 근무 : 주5일 4시간 탄력근무 가능
- 접수 : 전화 또는 vincen1984@hanmail.net
- 문의 : (042)626-2031, 010-7543-5114

포스트 및 하계 꾸르실료 교육 참가 신청
- 포스트 제9차 6.22(토) 10:30~23(주일) 17:00
  - 남녀 60명(선착순) /참가비 10만원
  - 자격 : 모든 꾸르실리스따 주임신부 추천
- 하계 꾸르실료(선착순 65명 /참가비 18만원)
  - 여성 제167차 7.17~20, 제168차 7.25~28
  - 남성 제170차 8.1~4 /청년 제12차 8.8~11
  - 자격 : 영세 후 만3년 경과한 신자(청년)로 본당 간사와 주임 신부 추천을 받은 자
- 곳 : 정하상교육회관 /참가문의 : 본당 간사

수도회 및 피정

예수회 월례 특강(무료, 미사봉헌)
- 때 : 5.3(금) 14:00~17:00 /개인컵 지참
- 곳 : 대사동성당(중구 대흥로10번길 19)
- 주제 : 교황 권고『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해설
- 강사 : 심종혁 신부
- 문의 : (02)3276-7777 예수회 후원회

제주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수도회)
- 수도회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 역사, 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 · 오름 트레킹
- 아래일정은 왕복항공 포함해서 예약가능
- 때 : 4.28~30, 5.4~7(추자도), 5.10~12, 5.15~17(제주교구성모의밤), 5.19~22(추자도), 5.31~6.2
- 문의 : (02)773-1463, (064)756-6009

주일학교 여름 향심기도 캠프
- 1차 7.19~21 /2차 7.23~25
  3차 7.23~25 /4차 7.29~31
  5차 8.2~4 /6차 8.6~8
  7차 8.9~11 /8차 8.13~15
- 곳 : 평화계곡 피정의집
- 문의 : 010-3422-7587

5월 평화계곡피정의집 향심기도
- 청년 대상 : 둘째 토, 주일(1박2일)
- 일반인 대상 : 셋째주 토, 주일
- 어르신 대상 : 매주 수(1일 피정)
- 문의 : 010-3422-7587

제주 성 이사돌 자연 피정
- 올레, 미사, 기도, 강의
- 대상 :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 때 : 4.22~24, 5.2~5, 5.8~10, 5.14~17, 5.19~21, 5.23~26
- 문의 : (064)796-9181

내적치유나 영적돌봄에 관심있는 분
- 2019년 여름학기 임상사목교육(C.P.E.)프로그램
- 때 : 5.20~8.31-평일반/토요반
- 곳 : 섭리C.P.E센터 /선착순 모집
- 문의 : 010-8863-3637 천주섭리수녀회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 효소단식피정 : 5.9(목)~12(주일) /28만원
- 성경통독피정 : 5.24(금)~6.1(토) /48만원
- 문의 : 010-3340-0201

요한복음 특강(송봉모, 예수회)
- 때 : 5.26(주일) 13:30~17:00
- 곳 : 예수수도회 교육센터 4층 대강당
- 주제 : 고통에 대한 이해
- 특강비 : 2만원, 특강당일 센터 1층에서 납부
- 주일미사 없음
- 문의 : 010-2985-9020 우리성서모임

[성심교육관] 부활절 2박 3일 무료 치유대피정
- 때 : 4.26(금) 22:00~28(주일) 15:00
- 곳 : 성심교육관
- 문의 : (031)262-7600 수원역 차량운행

〈성소 모임〉 수도회명	때	곳	문 의
살레시오 수도회	매월 1회 주일 11:00	대전 살레시오 청소년 수련원	010-3894-1332
예수수도회	4.28(주일) 14:00 / 원하는 시간	예수수도회 본원(대전) / 원하는 곳	010-5495-5190

DVD「궁금해요, 프란치스코 수사님!」10. 부활

제작 바오로딸 | 원 제작 Herald Entertainment, Inc. | 영어, 한글 자막 | 영어, 우리말 녹음 | 12,000원

프란치스코 수사님과 함께 놀랍고 감동적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알아보며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걸 다시 깨닫도록 해 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아이들까지 온 식구가 부활의 기쁨을 춤추고 노래하는 신나는 뮤지컬 애니메이션을 함께 보세요. 새로 나온 4탄까지, 총 12편 시리즈가 완결된 기념으로 5월 5일까지 20% 할인 이벤트를 합니다.(www.pauline.or.kr)

솔뫼우드산림산업(주) "산주님 고민하십니까? 저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대리경영)" 대표 박성현(토마스) T. (041)751-8833	**이안과병원** 63주년 기념 전문분야별 6인 진료 T. (042)220-5500, 220-5701	**The 맑은 눈 안과** 라식 · 라섹 / 백내장 센터 조항진(브루노) 진규현(아우구스티노) T. (042)476-0075 정부청사역 4번 출구	**구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 우울증, 공황장애) 원장 구미령(헬레나) 롯데백화점 건너편 T. 532-7009	**연세내과** (365일 24시간 진료) 대장 · 수면내시경, 4대암검진 내과전문의 박준용(베드로) 둔산 타임월드 정문 앞 T. (042)485-8000
남선익스프레스 (구 개나, 1톤 용달 가능) 이승원(요한 보스코) 김영숙(실비아) T. 010-4408-2424, 010-6671-2489	**분도여행사 품격 순례** 8월 20일 아시아나항공 출발확정 스페인 · 파티마 순례 11일 350만원 T. (02)852-8525	**세인트 라살 대학교** 여름방학 영어스쿨링캠프 4주 www.ng.or.kr / 페이스북 : 뉴젠에듀 뉴젠글로벌 010-7465-3211	**앗싸! 에어컨** 냉,난방기 판매 및 설치, A/S(자격증보유) 에어컨 이전설치(이사시 연락주면 청소무료) T. 010-9410-1192 양재호(요셉) 최미숙(이가다)	**광고모집** (042)257-0190
광고모집 (042)257-0190	**플랜트 치과** 손외수 대표원장, 양찬영(스테파노), 김명균(바오로) 원장 외 20명 의사 협진 T. (042)825-2275 유성 홈플러스 옆	**대전 베스트정형외과병원** 척추, 관절, 외상 전문 병원장 양준영(가롤로) 전 충남의대교수 T. (042)345-7700 둔산동 법원앞	**이바르게치과교정과치과** 원장:홍성규(미카엘) 교정전문의 치아우식 줄이는 교정/뿌리가 건강해지는 교정 우수증례상 타임월드네거리 1996 개원	**환자에 대한 바른생각 바른생각병원** 척추 · 관절 · 골절 · 내과 · 검진 월평동 선사유적지 옆 T. (042)337-0001

- 4월 25일(목) – 서천어메니티 복지마을 통합지원센터 축복식 및 준공식(11:00)
- 4월 27일(토) – 대전교구 시노드 폐막미사(솔뫼성지 10:30)
- 4월 28일(주일) – 성연성당 미사(10:00)

교구장 동정

4월 22일(월)~28일(주일)

교구 기관 및 본당 공동체 소식

자세한 내용은 대전교구 홈페이지(www.djcathol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51기 아버지학교

가정사목부(전담 최상순 신부)는 4월 6일(토)부터 7일(주일)까지 부강 엠마우스 피정의 집에서 '제51기 아버지학교'를 진행했다.

아버지학교는 16명의 수강자가 참석했으며, 참가자들이 아버지로서 자신을 바라보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성가정의 삶을 실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수료 후 총대리 주교님 명의의 수료증이 수여됐다.

천안불당동본당 사랑나눔 바자

천안불당동본당(주임 맹상학 신부)은 4월 7일(주일) 교중 미사 후 사랑나눔 바자를 개최했다.

본당 사회복지분과 주최로 열린 이날 바자는 본당 교우들이 후원한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였고, 중·고등학생들의 찬양 공연인 '그라티아'도 열려 분위기를 돋구었다. 수익금은 모두 불우이웃 돕기와 해외선교 후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천안신방동본당 생태영성 사순특강

천안신방동본당(주임 권태웅 신부)은 3월 22일(금)부터 4월 12일(금)까지 생태환경위원회(위원장 임상교 신부)를 초청해 사순특강으로 '생태영성 교육'을 실시했다.

총 4주간 매주 금요일 오전 미사 후 진행된 이번 사순특강은 '생태환경위원의 생태영성'(임상교 신부), '기반생태 – 지속가능한 먹거리'(권의경 카타리나), '인간생태'(김혜원 요셉피나), '경제생태 – 공유와 나눔의 경제'(조세종 디오니시오, 생태환경위원) 강의가 진행됐다.

삶과 신앙을 이야기하며, 마음과 이야기를 전하는

〈함께하는 이야기마당〉

『대전주보』 5면에 <함께하는 이야기마당>을 새롭게 마련합니다. 평신도, 수도자, 사제 모든 분들이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바라며, 채택되신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 원고 : 수필, 원고지 5장 및 A4 용지 20줄 이내
- 보내실 곳 : 대전 동구 송촌남로11번길 86 대전교구청 홍보국
  tjubo@hanmail.net / 문의 : (042)630-7751 홍보국
- 원고 초과 및 편집에 따라 일부 수정될 수 있으며, 지면상 "시"는 받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원고 보내실 때 연락처, 선물 받으실 주소 기재 바랍니다.

주님 부활 대축일

4월 21일(다해)

제1독서 사도 10,34ㄱ.37ㄴ-43

화답송

◎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업을 이루셨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

제2독서 콜로 3,1-4

부속가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무덤 부활하신 주님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의염포 난보았네.
그리스도 나의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앞서 갈릴래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굳게 믿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

복음 요한 20,1-9

영성체송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순결과 진실의 누룩 없는 빵으로 축제를 지내세. 알렐루야, 알렐루야.

사랑의 체감온도 2019년 온도현황

16.4℃

2019년 총 모금액
164,896,757원

2019년 3월 1일~31일 모금액

본 당	16,786,458원
단체 및 개인	19,260,245원

cpbc 대전가톨릭평화방송 FM 106.3MHz「오늘의 강론」 4월 22일(월)~27일(토) 오전 6시 50분~7시 성거산성지 전담 김동훈 신부 편

교구 시노드와 교구 설정 70주년 **4월** 기도 지향 – 사제성소계발과 양성을 위해 :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임을 기억, 실천하는 공동체